

유병언 부자 변장했다면 이런 모습



“유병언 로또 잡자” 순천은 난리법석

현상금 사냥꾼에 제보 급증...전남 일대 검문 초비상 경찰 1500명 풀어 도피처 수색 불구 검거못해 비난 체포된 신도와 순천서 통화한 유씨 측근 차량 추적

순천이 ‘난리법석’이다. 조용한 지방 소도시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처로 오르내린 뒤 전 수사력이 집중, ‘살벌한’ 분위기가 감지되는가 하면, ‘5억’이라는 막대한 현상금에 눈독을 들이는 ‘사냥꾼’들도 생겨날 조짐도 보이면서다. 여기에 지방선거 열기까지 맞물리면서 ‘난장판이나 다름없다’는 푸념도 들려온다.

◇순천 일대만 경찰 1500명=유 전 회장 부자(父子)가 한 때 순천에 기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천을 벗어나 광주·여수 등으로 빠져나가는 3곳의 길목

변 지역을 벗어난 것인지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빈약한 정보 탓에 투입한 ‘인력’ 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회의적 반응도 많다.

경찰·검찰은 앞서, 유씨가 보성몽중 산다원 소유 순천시 서면 송치재 휴게소 인근 부지에 머물렀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검·경은 여기에서 경기도 안성시에서 사용되는 관급봉투를 다량 발견했고 금수원에서 조달된 고기, 가든을 운영하는 부부의 주문으로 인근 주유소가 지난 12일 등유 300ℓ를 배달한 사실도 확인, 1주일 이상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일대가 이미 구원과 운영 영농조합 법인이 지난 3월11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산240 등 모두 22필지 44,638㎡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점, 기독교복음침례회 순천교회, 연수원 등 시설이 들어

서 있는데도, 주요 도피처 수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 경찰이 지난 16일부터 병력 1500명을 풀어 순천을 포함 전남 일대를 수색한 점, 유 전 회장 부자 등이 머물렀던 순천 부지가 유씨와 연관된 장소인데도 수색에서 빠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설픈 체포작전’에 대한 비판이 나올만하다.

검·경은 지난 25일 보성몽중산다원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상금 6억인데, 나도 한번 잡아볼까=유씨 부자에 내건 현상금이 역대 최고액인 6억원으로 오르면서 일반 시민들도 유씨 검거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장, 검·경 포위망을 고려하면 쉽게 순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등을 들어 나름의 도주로를 쟁기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는 게 순천 시민들 반응이다.

◇제보 급증=검·경이 유씨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후 이들 에 대한 제보가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신고 보상금 증액이 발표된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70여건에 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종 2차장검사)은 또 유 전 세모그룹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의혹을 받는 30대 중반 여성 신모씨를 전날 밤 체포해 조사 중이다. 신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 주거나 차량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일반 방청객 20명...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방청 문의 잇따라

20명!

10일 처음으로 열리는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의 재판을 직접 방청할 수 있는 국민 숫자다. 국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청 신청자 모집 전부터 문의전화와 잇따르는 등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 선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 방청객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애초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당일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기로 했었다.

이들은 10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주범정인 201호 범정(103석) 및 보조 범정(75석)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보조 범정 방청객(10명)은 모니터로 재판 상황을 볼 수 있다.

방청 여부는 오는 28~30일 광주지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2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일반 방청객 모집 여부가 알려지자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법원은 또 주범정 중 60석, 보조 범정의 45석을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주택가 방역
광주시 북구 기동 방역단이 모기 개체수 증가에 따라 26일 신안동 단독주택 골목에 돌며 방역을 하고 있다.

교통·소방 등 5대 안전비리 경찰, 9월까지 집중 단속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가운데 경찰이 5대 안전 분야를 정해 감독기관과 업체의 유착 비리를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은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안전비리 수사 TF’를 구성해 9월 초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5대 안전 분야는 ▲ 철도·자동차·여객 화물 등 교통안전 ▲ 소방시설·화재 점검 등 소방안전 ▲ 체육·레저·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 ▲ 건물·도로 등 건설 안전 ▲ 가스·전기·원전 등 에너지 안전 등이다. 경찰은 분야별 안전 점검 및 관리 기관의 부실 운영과 뇌물수수 등 업계 유착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졸업 못할 뻔한 대학생, 경찰 덕택에...

졸업작품 저장 노트북 PC방서 분실 지혜로운 수사로 범인 설득 되찾아

대학 졸업 작품이 저장된 노트북을 분실해 졸업을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대학생이 경찰의 지혜로운 수사 덕분에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됐다.

광주의 한 대학교 4학년애 재학중인 A(27)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 50분께 광산구 우산동의 한 PC게임방에서 노트북을 분실했다. 게임을 잠시 멈추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의자에 놓아두었던 노트북과 명품 가방이 갑작스레 사라진 것. 노트북에는 6개월 이상 준비해온 졸업 작품용 건축물 설계도가 들어 있었고, 졸업 작품 제출 마감일은 20일로 일주일 남겨두고 있었다. 일주일 안에 노트북을 되찾지 못하면 A씨는 학교를 1년 더 다녀야할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관산경찰 강력 1팀(김정일 경위)은 즉각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우선 PC게임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의자가 사용한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은 함평군 나산면에 거주하는 김모(32)씨.

경찰은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자가 분실한 컴퓨터를 찾아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회유작전’을 펼치는 지혜를 써냈다. 강간 등의 범행 전과가 있는 용의자 김씨는 함평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거주지를 자주 옮겨다닐 가능성이 컸다. 경찰은 김씨의 소재지 파악에 나서는 한편 통

주택가 방역
광주시 북구 기동 방역단이 모기 개체수 증가에 따라 26일 신안동 단독주택 골목에 돌며 방역을 하고 있다.

좁도둑 잡고보니 강도

○“동네 분식집을 털다 붙잡힌 40대 좁도둑이 검거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발견된 신용카드 몇장으로 인해 장기미제 강도 사건에도 연루된 사실이 발각.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안모(여·48)씨가 운영하는 분식집 앞에 서성이던 정모(41)씨는 주인 안씨가 식당을 나선 모습을 확인한 뒤 들어가 벽면에 걸린 옷에서 현금 125만원을 훔쳐갔다는 것.

○경찰은 “검거 당시 (정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6장이 발견된데다, 장기미제에 남아있던 2년 전 강도사건에까지 정씨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

★신축 원룸 (전대상대 2분 거리)

• 옹봉지구, 미래도 APT 입구 코너

• 신축 4층, 룸 21개

• 1층 상가 2칸, 4층 고급주택

• 엘리베이터 완비, 전체 대리석 시공

• 월수입 900만원(년 1억800만)

• 매가 11억5천(보 1억, 웅 4억)

★신축 원룸 (전대후문 2분 거리)

• 흥봉동, 신축 4층, 룸 12개

• 1층 점포 1칸, 원룸 10개, 4층 주택 1개

• 월수입 450만원, 매가 6억5천

★나주 이창동 원룸 (4층)

• 룸 19개, 월수익 570만

• 매가 4억2천(웅 1억, 보 3천만)

★수완지구 상가 (3층)

• 신한은행 뒤, 모아엘가 APT 상가 맞은편

• 주위 6000세대 APT 밀집

• 4층 건물중 3층, 85P

• 월수익 200만(년 2400만 수익)

• 매가 3억5천(웅 2억5천, 보 3천)

★첨단지구 상가 2층, 62P

• 부영 APT 맞은편, 오션스파 2층

• 월수입 80만(1년 1760만)

• 매가 1억7천(웅 9천, 보 1천)

★원룸형 오피스텔(쌍촌동)

• 윤천역 1번 출구 3분거리

• 원룸(10P)-매가 3400만(보200만 월27만, 웅1천)

• 원룸(11P)-매가 3500만(보200만 월27만, 웅1천)

(주)대신

010-6670-9800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남 / 직원 모집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남 : 45세이하, 사무 및 기타

여 : 45세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